

“지역문화예술 거점기관으로 도약할 것”

전주문화재단, 올해 비전 ‘예술을 뿌리로, 상상을 열매로’ 제시… 4개 목표 선정 총 14개 사업계획 발표

전주문화재단이 2016년 ‘예술을 뿌리로, 상상을 열매로’라는 비전을 정하고 변화와 외연 확장을 통해 지역문화예술 거점기관으로 새롭게 도약하겠다고 당찬 포부를 내걸었다.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전주답게, 예술이 삶 속으로 뿌리내리고 문화적 상상들이 풍성하게 열매 맺도록 재단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전주문화재단은 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올해 ‘예술진흥, 플랫폼, 정책협력’ 3대 키워드를 올해의 비전으로 담아내고 구체적인 추진을 위해 4개의 목표를 선정해 총 14개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를 위해 전주문화재단은 올해 현재 3팀으로 운영하고 있는 직제를 생활문화팀을 신설해 경영지원팀, 정책협력팀, 예술진흥팀 등 총 4팀으로 개편했다.

또한 전주문화재단은 전주시가 폐산업 시설의 문화적 재생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팔복문화예술공간, 공연예술 활성화 등을 위한 동산동 공연연습장, 동문예술거리의 시민놀이터, 동문 창작지원센터, 동문길 60, 평일 한옥상설공연 등을 운영하는 등 문화재단의 역량을 집중해 매진할 것을 다짐했다.

4개 목표에는 ▲시민 문화예술인과의

협업을 위한 ‘문화동행’ ▲변화하는 문화환경에 대응하고 선도하는 ‘문화정책’ 실행 ▲문화의 기초인 ‘예술진흥’을 위한 지원 확대 ▲삶 속으로 파고드는 ‘생활문화’ 등이 선정됐다.

▲시민, 문화예술인과의 협업을 위한 ‘문화동행’ 지역과 같이 소통하겠다는 문화동행 분야에는 전주문화재단 창립 10주년을 기념해 향후 정책비전을 제시하는 ‘10주년 기념사업’, 변화하는 사회를 기록해 지역문화의 발굴 및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전주시 마을조사’, 문예정보지 발간을 통해 전주시의 문화예술정책과 사업을 홍보하는 전주문화발전 ‘문화넷’ 발행사업이 진행된다.

▲변화하는 문화환경에 대응하고 선도하는 ‘문화정책’ 실행

예술가와 시민이 주체적인 문화정책으로 지원하는 ‘문화정책’에는 시민사회와의 문화수요를 전달하는 문화커버넌스, 청년전주 문화포럼, 문화예술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 및 지원하는 문화콘텐츠 창의뱅크, 전통문화중심지구내 실제조사를 통한 전통문화도시 조사기록사업, 관소리를 활용한 명소화 토대 마련 ‘지역문화컨설팅 지원사업’, 지역문화인들에게 지속가능한 문화일지지를 창출



전주문화재단은 1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총 14개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하는 ‘한옥지원활동 아간상설공연’ 등이 추진된다.

▲문화의 기초인 ‘예술진흥’을 위한 지원 확대

예술가들에게 안정적인 창작환경을 제공할 ‘예술진흥’에서는 전주 연구 문화 예술인의 작품세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전주백인의 자화상’, 지역문화예술 단체의 공모 지원사업 개발을 집중 지원할 ‘국가공모사업 지원 및 문화올림픽단 운영사업’, 기타 ‘신진예술가 지원사업’, ‘예술 진흥·지원사업’, ‘청소년 문화활

동지원 사업’ 등이 예정됐다.

▲삶 속으로 파고드는 ‘생활문화’

다양한 시민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는 ‘생활문화’에서는 생활권 유휴공간을 활용한 ‘우리는 동네에서 논다’ 사업이 진행된다. 임 환 이사장 직무대행은 “전주문화재단은 10주년인 2016년을 재도약의 원년으로 설정하고 새로운 10년을 준비하겠다”며 “앞으로도 문화도시 전주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문화전문기관으로 거듭 나겠다”고 밝혔다. /고은지 기자



현대적 이미지 접목 한지조형작품

전주교대 최경은 교수, ‘한지와 생활’ 전 내일까지

전주교육대학교 최경은 교수가 내일까지 서학아트스페이스에서 ‘한지와 생활’이라는 주제로 한지 패션 및 인테리어 용품들을 전시한다.

이번 전시에서 최 교수는 한지가 갖고 있는 전통적·자연적·환경친화적 느낌을 현대적인 이미지와 접목한 다양한 조형작품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접착한지(양배지), 탁피를 주재료로 레이저트, 퀴팅 기법으로 한복, 서양복, 인테리어용품 등 실용적인 작품들이 제작 전시된다.

최경은 교수는 “생활 속 패션소재로서의 한지를 통해 실용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라며 “전주 한지의 우수성, 정통성, 인지도 제고를 통한 한지 및 한지패션산업의 활성화에도 기대를 걸고있다”고 말했다. /고은지 기자



어른을 위한 동화 ‘어린왕자’ 연극으로 읽는다

오늘부터 28일까지 한옥마을아트홀서 공연

‘오로지 마음으로 보아만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거야,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는 보이지 않는 법이야’ 어른을 위한 동화 ‘어린왕자’가 전주에서 연극으로 관객들을 찾는다.

한옥마을아트홀은 ‘어른이 되어버린 당신을 위한 동화’라는 주제로 오늘부터 28일까지 생텍쥐베리의 명작 ‘어린왕자’를 무대화 한 연극을 아트홀 무대에 올린다.

잠미를 떠난 어린왕자가 별들을 여행하며 왕, 사업가, 허영쟁이, 등대지기, 주정뱅이, 지질학자 등을 만나고 지구에 온 이야기들을 엮은 동화같은 이 소설은 “친구가 된다는 건 같잖은 짓이야”, “나는 네 잠미꽃에 책임이 있어”, “사막이 아

름다운 건 어딘가에 생물을 품고 있기 때문이야” 등 어른이 된 후 더욱 마음을 울리는 주옥같은 언어들로 가득한 명작이다.

작품을 연출한 김영오 대표는 “무대화를 통해 새로운 것을 표현하려는 것 보다는 최대한 원작 그대로의 느낌에 충실하고자 했다”며 “부모들이 아이들과 함께 공연을 관람하며 공연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스스로도 점차 나이를 먹어가며 새로운 깨닫게 되는 것들에 대해 되새겨 보는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연은 월요일을 제외한 평일 7시 30분, 토요일 3시·7시, 일요일 3시에 펼쳐지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옥마을아트홀(282-1033)로 문의하면 된다. /고은지 기자

전주세계소리축제 김 한 조직위원장 연임 확정

오는 3월 6일부터 두번째 임기 시작… “제2 도약 일구는데 노력할 것”

지난 2011년부터 전주세계소리축제 조직위원장을 역임한 김 한 조직위원장의 연임이 확정됐다.

소리축제 사무처는 1일 전북도 등에 연임 요구를 받고 고명한 김 한 조직위원장이 연임의사를 결정해 오는 3월 6일부터 2019년 3월 5일까지 2번째 임기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간 김 위원장은 지난 2011년 3월 29일부터 2013년 3월 5일까지 김명근 전 조직위원장의 잔여임기와 함께 2013년 3월 6일부터 2016년 3월 5일까지 본인의 첫 임기를 무사히 마쳐 총 5년의 기간동안 조직위원장을 역임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임기동안 조직의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지역사회의 소통, 새로운 내부 변화 등에서 소리축제를 반석 위에 올려놓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한 조직위원장은 “소리축제는 지역의 보석이자 대한민국의 자랑”이라며 “비쁜 일일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소리축제 제2의 도약을 일구는데 작은 밑일이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서울대 기계공학과와 미국 예일대 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대신증권 상무이사, 메리츠증권 부회장, 전북은행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 K금융지주 회장과 광주은행장을 겸임하고 있다.

김 한 조직위원장 연임은 2월 중 개최될



전주세계소리축제 김 한 조직위원장.

전주세계소리축제 조직총회를 통해 최종 의결 절차를 밟아 공식적인 승인후 시작된다.

한편 전북은행 과경직으로 업무를 수행해 온 김승택 전주세계소리축제 사무국장 은 K금융지주 상무로 승진하고, 김 한 조직위원장과 더불어 연임 기간 동안 사무국장으로서 역할을 이어가게됐다. /고은지 기자

프로젝트마켓 피칭 프로젝트 공모

전주국제영화제, 극영화·다큐멘터리 라이징 시네마 부문 오는 15일까지

전주국제영화제가 오는 15일까지 전주프로젝트마켓의 피칭 프로젝트를 공모한다.

이번 피칭프로젝트는 ‘극영화 피칭’과 ‘다큐멘터리 피칭’, ‘라이징 시네마 쇼케이스’ 세 부문에 걸쳐 공모된다.

특히 올해는 기존 피칭 심사를 폐지, 서류와 면접심사만으로 피칭 선정자와 수상작이 선정된다.

‘극영화 피칭’과 ‘다큐멘터리 피칭’은 참신하고 기획력 있는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분야로 신인과 기성 불문하고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각 부문별 선정된 최우수상에게는 제작지원금 1,000만원과 제작 및 후반 작업 단계에서 다양한 한물지원을 받는다.

그 외에도 프랑스 국영방송 ‘TV5MONDE’가 후원하는 ‘TV5MONDE 상’, 우수상, 관객상 등이 마련됐다.

또한 올해부터 공모로 전환된 ‘라이징 시네마 쇼케이스’는 배급사가 없어도 우수한 한국영화와 관객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라이징 시네마 쇼케이스’에서 선정된 작품은 프로젝트마켓을 통해 배급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작품 홍보가 가능하며, 심사를 통해 선정된 배급지원상과 우수상 수상작은 각각 1,000만원과 500만원의 배급지원금을 받게 된다.

이번 피칭 프로젝트 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주국제영화제 홈페이지(jif.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참가신청서와 기타 서류는 홈페이지에 공고된 각 부문별 지정된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고은지 기자

피별로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slab.com/ <2016년 2월 2일>

<p>▷쥐띠 46년생: 건강에 유의해야 하는 운. 평소 지병이 있는 사람은 더욱 조심하라. 80년생: 지금은 물러서야 할 운이니 따른 기다리는 것이 현명하다. 72년생: 다른 사람과 화합이 되지 않으니 협상은 미루는 것이 좋다. 84년생: 기형 가까운 사람과의 불화가 예상되니 협한 말은 삼가라.</p>	<p>▷소띠 46년생: 다른 사람에게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운이다. 적극적으로 활동하라. 61년생: 진실로 일관한다면 말아주는 사람이 나타나라. 78년생: 금전적으로는 좋은 기운이나 구실이 따르니 주의하는 것이 좋다. 85년생: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계획을 세워 추진하라.</p>	<p>▷호랑이띠 50년생: 자신이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운. 62년생: 손아래 사람의 조언에 의해 기술야라. 74년생: 매사에 감정을 배제하고 이성적으로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85년생: 인덕은 버리지 마라.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일구어 나가야 할 것이다.</p>	<p>▷토끼띠 51년생: 동분서주하는 운이니 결과는 미약하나 욕심은 버리고 작은 것에 만족하는 것이 좋다. 63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시비를 가는 사람이 나타나니, 휘둘러라 말라. 75년생: 혼자서는 미흡하니 자신보다 능력 있는 사람의 지혜를 빌려라. 87년생: 이득이나 새로운 변화를 갖는 것이 좋은 운이다.</p>
<p>▷용띠 52년생: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진행하라. 좋은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 64년생: 다른 것을 하기 보다는 기존의 해왔던 일에 집중해야 할 때이다. 76년생: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자각하고 표현하고 행동하라. 88년생: 욕심을 뿌리박지 않는다면 작은 일에 대해서는 좋은 결과가 있다.</p>	<p>▷뱀띠 53년생: 성급하게 서두르면 일을 그르칠 수 있으니 따른 기다라. 65년생: 지금은 앞으로 나아가 시작할 때가 아닌 뒤로 물러서 준비할 때. 77년생: 사고수와 실물수가 따르니 위험은 삼가는 것이 좋다. 89년생: 생각의 전환이 오히려 해가 된다. 기존의 것을 고수하는게 좋다.</p>	<p>▷말띠 54년생: 중간에 파란한 상황들이 발생하니 심신이 고갈된 운이다. 66년생: 어려운 일에 억지된 순서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해결될 것이다. 78년생: 지나친 욕심으로 화가 미치지 작은 것에 만족하는 것이 좋다. 90년생: 정신적으로 편안하지 않은 운이다. 마음의 안정을 취하라.</p>	<p>▷양띠 55년생: 타인으로부터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니 애초에 원인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67년생: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나니 곤란한 상황을 잘 모면할 것. 79년생: 나무꾼 보지 말고 숲을 보며 큰 그림을 그려라. 91년생: 자신이 잘못하고 책임질 수 있는 일만 진행하라.</p>
<p>▷원숭이띠 56년생: 혼자만의 생각으로 움직이면 민망한 상황이 발생한다. 주의하라. 68년생: 하고자 하는 일의 시작보다는 끝머리부터 정리해 하는 운이다. 80년생: 타인과의 불화가 예상되니 모임을 다름으로 미루는 것이 좋다. 92년생: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나니 결심을 잃지 마라.</p>	<p>▷닭띠 57년생: 좋은 운이 들어오니 서두르지 않는다면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69년생: 결과적으로는 좋으나 과정이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마라. 81년생: 남성은 이성을 주의해야 하는 운. 권위 속이 다르니 조심하라. 93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구실이 따르니 말과 행동에 주의가 필요하다.</p>	<p>▷개띠 46년생: 변동수가 가지면 출근일이 발생하니 현심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58년생: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것보다 이성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좋다. 70년생: 건강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관지 계통을 주의하라. 82년생: 작은 소망은 이루어 수 있는 운이다. 긍정적으로 전진하라.</p>	<p>▷돼지띠 47년생: 계약과 같은 문서는 주고받는 일도 좋으며 작은 투자는 좋은 운이다. 59년생: 타인과 화합이 잘 되며 타인이 호의적으로 다가오는 운이다. 71년생: 소소한 것 사치하게 신경 써야 하는 운. 83년생: 금전문이 안 좋아지니 계획적인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p>